

러시아 '나발니 돌연사' 후 공포 분위기가...검열·통제 강화

동생 수배명단 올리고 부인 올리아 소셜 계정 차단 등 압박 가해 추모객 400여명 체포...NYT "광범위한 탄압으로 이어질 우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돌연사를 둘러싸고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와중에 당국이 곳곳에서 검열과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나발니의 가족과 측근부터 당국의 표적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최근 나발니의 친동생 올레그 나발니가 러시아 내무부의 수배 명단에 두번째 올랐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경찰이 올레그에 대한 새로운 형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올레그는 앞서 2022년 1월 다른 사안으로 수배

명단에 올라왔다.

그는 2021년 형인 나발니의 석방 요구 시위를 벌인 이후 코로나19 방역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국은 그가 보호관찰을 따르지 않았으며 수배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당국의 조치는 나발니가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이후 유족들이 그의 시신이라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 추모 물결에도 강경 대응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추모객 등 최소 400명을 체포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인권단체 OVD-인포를 인용해 체포 명단에는 추모 예배를 열려던 신부 등이 포함했으며 이같은 체포 인원은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전 동원령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

모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에서 5번째 임기를 확장할 때까지는 크렘린이 탄압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제는 이같은 체포가 더 광범위한 탄압의 예고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NYT는 전했다.

나발니의 정치적 동지이자 '포스트 나발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야권 인사 일리아 야신도 옥중에서 위협을 감수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변호사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해 "속에서 어두운 공허함이 느껴진다. 고통과 공포가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탄하며 "누가 죽었나. 나는 그것이 푸틴이라고 확신한다. 푸틴은 그럴 동기와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야신은 그러면서 "내게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면서 "내 목숨은 푸틴 손에 달렸고 지금 위협에 처했다. 하지만 나는 독재에 맞서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앞서 나발니의 부인인 올리아 나발니야도 돌연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는

일을 겪었다.

20일 오후 올리아의 엑스 계정은 약 45분간 '이 계정은 X 운영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일시 정지됐다'는 메시지만 표시됐다.

올리아는 비통함 속에서도 유럽연합(EU) 등을 돌리며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국제사회 대응을 호소해왔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반역죄 카드도 꺼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20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33세 여성을 반역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현지 법률단체는 이 여성이 체포된 명목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80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럽에서는 앞서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던 러시아 조종사가 최근 의문의 죽음을 맞기도 했다.

지난 13일 스페인에서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군 조종사 막시 쿠즈미노프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쿠즈미노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첫 러시아군 조종사로, 지난해 8월

러시아군 전투기 부품을 실은 헬리콥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죽음이 유럽 영토에서 러시아가 명령한 암살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친푸틴 블로거인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이같은 뉴스는 모두에게 우크라이나 정권과 절대 손잡지 말고 목숨부터 구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오히려 여론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20일 간첩 혐의로 불잡혀 있는 에반 게르시코비치 웰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의 재판 전 구금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구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다음 달 말이면 1년이 된다.

러시아 법무부는 또 20일 미국 의회 자금을 지원 받는 자유유럽방송(RFE/RL)을 '부적격 조직' 명단에 올리고 활동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6월 불잡은 RFE 알수 쿠르마세바 기자의 구금 기간도 4월 초까지로 연장했다.



관광지 온 듯 가자지구 배경 사진 찍는 이스라엘 여군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이스라엘 여군이 하리에 손을 얹고 가자지구 폐허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카메라에 포착된 여군들이 현역 군인인지 훈련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시드니 한인 일가족 3명 사망...용의자 태권도 사범 체포

호주 경찰이 시드니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인 태권도장의 사범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49세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50분께 유씨가 가슴과 팔, 배에 자상을 입고 시드니 서부 웨

스트미드 병원에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공격받았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은 신고 받고 노스 파라마타 인근 볼컴 힐스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39세 남성 조모씨를 발견했다.

또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찰은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41세 여성과 7세 남자의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사건들이 모두 연관돼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유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후원금 560억원...풀뿌리 소액후원 몰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밀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원금 모금에서 기세를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지난 1월 한 달 동안 모두 4200만달러(약 56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선대위는 선대위를 포함한 2개의 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에서 지난달 이 같은 금액을 거둬들였다고 공개했다.

선대위는 현재 모두 1억3000만달러(약 1735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보유한 상태이며, 이는 같은 시점 기준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총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모금 시작 이후 지난달에 가장 많은 소액 후원자가 집중됐다고 위원회측은 강조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선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1월 후원금 모금은 전적으로 풀뿌리 후원자들이 이끌었다"며 "이는 대선이 치러지는 한 해의 시작으로서 아주 강력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5일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직후 사흘 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100만달러에 달하는 소액 후원금이 몰려들었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1월에 880만 달러(약 117억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된 트럼프 캠프 재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상으로는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 캠프를 모금액 면에서 압도하는 형국이지만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탈중국 속도내는 일본 기업...“3년 후 중요한 수출국은 미국”

일본무역진흥기구 설문

일본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가장 중시할 수출국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지난해 11~12월 외국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본 기업 3천196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미국이 20.9%로 중국(18.4%)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7.7%), 대만(7.1%), 인도(6.1%)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대만, 인도는 전년과 비교해 0.9%포인트, 2.3%포인트, 3.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중국에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을 검토한다'는 응답은 33.9%에 그치며 과거 10년간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